

# 大地震 아픔극복, 韓불교계도 한마음으로

## 일본 가나가와 현 가마쿠라 광명사서 한일 합동 위령제 봉행, 성금 1000만엔 등 전달

“한국불자들의 큰 자비심은 일본 국민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줍니다. 한·일 불교교류를 넘어 동아시아 우호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계가 일본 현지에서 동북대지진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봉행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는 5월 23일 오후 2시 일본 가마쿠라 정 도종 광명사에서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지진 및 쓰나미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등 한국불교계 대표 40여 명과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 부회장 후지다 류조(藤田隆乘) 스님 및 일본 불교계 인사 30명 등 200명이 참석했다.

일한불교 사무총장 노자와 료코 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령제는 일본 의식과 한국 의식이 순서대로 각각 진행됐다.

한국 의식으로는 반야심경 봉독, 추모묵념, 회장 및 부회장단 추도사, 한일불교 수석부회장 흥파 스님의 발원문 낭독, 한일불교부회장 인공 스님의 추도사, 천도의식 및 살풀이, 한일불교 부회장 혜경 정사의 위로말씀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에 성금 1000만 엔(약 1억 3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위령제에서 한일불교교류협회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의 추모사 대독을 통해 “대지진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자비심천의 불교도의 도리를 넘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일본 국민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회장 인공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일본의 높은 시민·질서 의식은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국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대지진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도 큰 아픔이었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대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일본 국민들을 격려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면밀하고 정성어린 위령봉사를 봉행해줘 감사하다. 한국 불자들의 큰 자비심은 일본 국민들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준다”며 “동아시아 우호관계가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기를 기원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천도의식은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범주로 천태종 범음법패보존회 스님들이 진행했다.

한편, 이번 한국불교대표단으로는 태고종 총무



한일 불교계 대표들이 위령제에서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고 있다. 좌로부터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일한불교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

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원용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정 스님, 총지종 총무원장 지성 정사 등 한국불교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계종에서는 대표단의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혜경 스님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교류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22일 일본 진언종 본산인 가마쿠라 평간사를 방문해 관수(본사 주지)인 후지다 류조 스님과 함께 혼마의식을 올리고 성금을 전달했다.

후지다 류조 스님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들을 대신해 한국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씨

에 감사를 표한다”며 “지진 피해회복과 함께 불법홍포와 한일 불교문화교류의 또 다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표단은 당초 후쿠시마 지역에서 피해 복구 및 위령제, 성금 전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정부의 불허로 가마쿠라 지역을 방문했다. 가마쿠라 지역은 약 800년 전, 가마쿠라 막부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곳으로 진언종 총본산이 위치해 있는 등 불교색채가 강한 곳이다. 1923년 관동대지진의 아픔을 간직한 가마쿠라 지역은 도쿄에서 1시간 가량 거리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으로부터는 약 200km 떨어져 있다. 대표단의 방문 직전인 22일 오전에는 진도 5.3의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 “일본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일한불교교류협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가마쿠라 평간사 관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제 대덕스님들께서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일본에 와 주셔서 오늘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해 정성어린 위령봉사를 봉행해 주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큰 구원금을 보내주신 것 거듭 감사의 예를 드립니다. 지원기관을 통해 피해자 구원에 유익하게 활용되게 할 것입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국내 관측 사상 최대가 되는 마그니튜드 9.0을 기록하고 1000년에 한번이라고 하는 아직껏 경험한 바가 없는 큰 해일로 인해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부를 중심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사망자가 1만5000명을 넘고 2개월이 경과한 현재에도 행방불명자는 8000명이 되고 피난민은 1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에 기인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도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미증유의 재해에 일본국민은 하나가 되어 부흥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중일 3국 불교의 황금의 고리로 이어지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모든 분들의 크나큰 자비심은 일본국민에게 더욱더 용기와 활력을 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같이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중국의 온가보수상이 내방하고 동북의 피해를 위문해 주신것은 동아시아의 우호관계를 나타내는 참으로 의의 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국민 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원조에 힘입고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부흥을 바라는 바입니다.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강 장치인 찬덕불교가 신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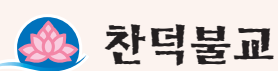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